

청소년의 불평등 의식: 고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기회불평등 의식을 중심으로

이성균 교수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요약문	1
I. 서론	2
II. 교육기회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이해	3
III. 2000년대 교육기회 불평등의 한국적 맥락	5
IV. 분석결과	6
1. 교육 경험	
1) 학교 교육	
2) 사교육	
3) 어린시절 문화체험/교육	
2. 사회적 기회불평등 의식	
V. 결론	19

청소년의 불평등 의식: 고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기회불평등 의식을 중심으로

이성균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요약문

한국사회에서 고등학생들의 교육경험은 사회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계층·지역별로 상이하다. 학교교육이나 사교육 기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지역과 기타지역(강원·호남 등), 상류층 가족배경과 하류층 배경의 학생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어린시절의 문화체험활동, 예체능분야 사교육, 국내외 여행경험도 계층·지역간에 많은 격차를 나타낸다. 한국사회에서 교육받을 기회는 형식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의 교육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교육경험 차이는 교육기회불평등, 더 나아가 전반적인 기회불평등에 대한 의식이나 계층이동 기대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성공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등학생이 많으며, 취업·승진, 교육, 인맥형성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영역의 기회 공평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의식은 주관적 하류층 혹은 기타지역(강원, 호남 등) 고등학생일수록, 그리고 어린시절부터 공·사영역의 교육경험이 적은 학생일수록 더욱 부정적이다. 또한 많은 고등학생들이 자녀세대가 자신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계층이동은 현재의 계층적 지위를 뛰어넘는 상승이동 보다는 ‘현재의 사회적 조건이나 기회불평등을 반영하는 계층 재생산’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교육기회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으로 표현되는 공교육의 강화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육관련 예산확대 등이 필요하며, 낙후지역에 있는 학교,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특별예산과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또한 가정배경이나 사교육경험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배우고 노력한 결과를 기초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기회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사회경제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학력·직종·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은 청소년들에게 좀 더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I. 서론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기는 성인기 삶을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모든 청소년들은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기회와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점은 정부가 제정한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하며(청소년기본법 제1장 제 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가족차원을 넘어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등 전 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OECD, 2013).

특히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청소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교육기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적 성장, 인간관계 형성,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있으며, ‘좋은’ 대학 혹은 ‘취업이 잘되는 학과’에 진학하려고 학기 중이나 방학기간에도 사교육을 받으며 살아간다. 대학이 미래의 직업과 인간관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공·사영역의 교육기회는 한국 청소년들의 지적 성장과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청소년의 교육기회는 민주적 개방사회에서 사회이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민주적 개방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출신 배경이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본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보상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이 교육을 통한 세대내(intragenerational) 혹은 세대간(intergenerational) 계층이동을 분석하고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교육이 현대사회에서 갖는 이러한 중요성을 잘 나타낸다(Giddens, 2009; 장상수, 2015; 방하남·김기현, 2002). 한국사회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관심 혹은 부모의 자녀 교육열은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용어들이 인터넷에서 일반화되면서, 교육기회의 평등 혹은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노력이나 자질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등이 자신의 미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표현되는 청소년들의 의식은 미래의 사회적 행위와 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간의 생애과정을 볼 때,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 혹은 사회의식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본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홍봉선, 2014: 299), 이 시기의 사회불평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성

인기 생활과 사회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입시에 가장 민감한 연령층’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관련 경험과 기회불평등 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고등학생의 기회불평등은 진학·취업준비, 사회적 교류관계, 문화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여 교육기회불평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회불평등을 설명한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교육경험을 설명하고, 이러한 교육경험이 기회불평등 의식과 사회이동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또한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기회불평등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찾아본다. 사회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교육불평등의 주요 요인들, 예를 들어서 가족배경이나 지역 등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교육경험, 기회불평등 의식, 사회이동 기대감 등을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회불평등 의식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II. 교육기회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이해

한국의 청소년들은 최소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보장받고 있으며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의무교육제도 도입, 고학력층 노동력 수요 증가, 자녀교육열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 한국의 초등교육 취학률은 1960년대 초반에 이미 100%에 이르렀으며, 중고등학교 취학률도 2000년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는 상황이다 (박환보, 2015).

그러나 한국사회의 교육현실을 보면, 교육기회가 실제로 동등하게 제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특목고·자사고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교육프로그램도 개별 학교 혹은 교육청별로 상이하다. 특히 내신과 대학입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가족배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기회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또한 청소년기 사회문화적 체험기회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 청소년의 인성개발을 위한 문화·예술·체육분야 체험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 분야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과성적과 비교과분야 활동이 대학입시의 주요 평가기준이 되어, 어린시절부터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려는 학부모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체험·교육기회는 개인의 가치와 취향 등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토대가 되며 공식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 및 문화적 취향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Bourdieu, 1984; 장미혜, 2012), 한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아니다.

교육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청소년의 교육기회는 가족배경, 학교특성,

지역, 사회적 자본(관계) 등 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세대에서 생긴 결과의 불평등은 자녀세대에 이르러서는 조건의 불평등으로 바뀌고, 이 조건의 불평등은 자녀가 학업을 이어나가고 직업을 잡으며 소득을 얻을 기회를 제약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 (장상수, 2015). 한국사회에서 ‘부모세대에 형성된 결과의 불평등’ 가운데 자녀의 교육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가족배경과 지역 등이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가족배경이 교육기회의 격차를 낳는다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한다.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모의 학력, 정보, 관심,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소위 입시명문학교 입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교육접근성도 이러한 가족배경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예술취향이나 인지능력, 독서습관 등과 같은 문화자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성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Giddens, 1997; Sorensen and Morgan, 2000; Coleman et al., 1966; 변수용·김경근, 2008). 한국의 경우에도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Park, 2013; Byun and Kim, 2010; 김경근, 2005, 방하남·김기현, 2002). 부모 세대의 학력은 과거보다 더 높고 자녀의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관심과 교육투자는 더욱 높아지고 사교육의 학업성취도 효과도 더욱 증가한다(신중호·황혜영·서은진, 2010).

또한 지역별 교육 환경·인프라 등도 교육기회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거주지나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 교육 기회, 여건, 질 등이 차이 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교육기회를 제공받는다. 미국의 경우, 빈민층 거주지역과 중상층 거주지역은 학교시설과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에서 현저히 구분되며(Coleman et al., 1966), 아동이나 청소년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역간 혹은 도시-농촌간에는 학교시설,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사교육 기회, 상급학교 진학률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강영혜·김양분·류한구·김재철·강태중, 2004: 5~6).

일반적으로 교육여건과 기회는 전반적인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공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낳고 이러한 수요에 따라서 교육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기회도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기업 제조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영남권,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알려진 호남권과 강원권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역격차는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도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라는 '2014년 지역소득(잠정)' 조사결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KOSIS). 또한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 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광역행정단위에서도 주민들의 소득과 직업분포 등에 따라서 교육관련 수요, 인프라, 시설 등이 달라져 교육기회 격차가 발생한다. 결국 청소년의 교육기회는 가정배경뿐만 아니라 지역별 조건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며,

한국사회의 지역발전 격차도 청소년의 전반적인 교육기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2000년대 교육기회 불평등의 한국적 맥락

2016년 현재 고등학생 연령층과 이들의 부모세대는 한국사회 변화과정에서 독특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들은 ‘IMF위기’로 상징되는 경제위기,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노동시장과 교육제도의 변화 등을 경험하였고, 특히 부모세대의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세계화의 경험은 자녀교육 방식이나 내용, 사교육활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기 이후 한국사회는 경기불황과 회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경기변동에 따라서 노동시장과 가계경제 상황도 과거 고도성장기와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 안정적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자와 비정규직 취업자는 증가하였으며, 산업·직업·기업규모·고용형태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자녀보육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출산율도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고등학교 연령층의 부모세대는 고용불안정, 소득양극화, 자영업 전환 및 몰락 등을 직접 경험하였고, 고등학생 본인들도 청년실업문제 등에 관한 소식을 접하며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안정성을 체험하였다.

또한 현재 고등학생들이 성장한 2000년대는 정보화와 세계화가 한국사회를 지배한 시기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되면서, 한국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고 컴퓨터, 이동통신, 게임,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방식도 증가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상품·노동력·자본·문화 등이 전체계적으로 통합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neoliberal globalism) 흐름이 한국사회를 지배하였다(이성균·신광영·조돈문, 2007; 안병영·임혁백, 1999). 이른바 ‘인터넷 강의’가 공·사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거나 청소년들의 해외탐방·교류기회가 늘어나고 영어능력이 중시된 것은 2000년대의 정보화와 세계화 흐름을 반영한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은 교육제도 변화에서도 나타났다. 교육개혁위원회가 1995년에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한 후, 교육당국은 교육제도 운영의 유연화, 교육 선택권, 외국어교육 확대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다양한 교육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자율형사립학교 등을 확대하는 “고등학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추진된 경험도 있다(김영화, 2015; 268). 또한 대학입시제도도 수시·정시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내신성적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교과 및 종합) 전형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이러한 입시제도 변화는 초·중등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등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기회를 더욱 다양화시킨다.

소위 입시명문 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초등학교부터 각종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과 부모가 늘어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결국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교육경쟁, 실용적 목표, 세계화 등을 중시하던 시기에 태어나고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대학입시를 위하여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 등 많은 분야에서 교육적 성과를 나타내야 하는 집단이다. 저출산 추세에 따라서 대학입학자원이 줄어들어 대학진학 기회 자체는 좀 더 확대되지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대학과 전공에 대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였다. 청소년들의 교육경험이 나 불평등의식은 이처럼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적 능력이 가계수준별로 격차를 나타내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¹⁾

IV. 분석결과

이 연구는 2016년 현재 고등학생 연령층에 대한 설문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이들의 교육관련 경험과 기회불평등 의식을 파악하고, 가족배경 및 지역별 차이를 설명한다. 특히 교육기회 불평등과 관련하여, 학교교육과 사교육 경험, 어린시절(응답자의 8~13세 시절)의 문화예술체험·교육기회를 계층·지역별로 비교하고, 한국사회의 기회불평등과 계층이동에 관한 의식을 자세히 살펴본다. 분석에 활용한 응답자는 고등학생 연령층 500명(가중치를 부여한 응답자규모)이다. 성별로 남성 52.1%, 여성 47.9%이며, 학교유형별로 일반계 고등학생 77.1%, 비일반고(특목고, 예체능계열학교 등) 22.9%, 지역별로 서울 17.3%, 인천·경기도 31.0%, 영남권 15.6%, 기타 지역(강원, 충청, 호남 등) 26.1%이다.

1. 교육 경험

1) 학교 교육

중학교 졸업생들이 대부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한국사회에서 교육기회를 파악하는 일차적 작업은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이다.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은 나라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진학 여부가 교육기회를 나타내지만, 진학률이 높은 한국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 및 시설 등이 교육기회의 현실을 나타낸다.

1)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들이 과외·학원·방문학습지·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4년 연속 증가했으며, 소득 100만원 가구의 사교육 비용은 10만2000원이었으나, 7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82만8000원이었다. 또한 ‘2014 한국사회조사’에서 13~29세 연령층의 교육기회 충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교육기회가 충족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학비마련이 어려워서’(45.3%)이다.

<표 1>에 의하면,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학생의 고민을 상담하고 진로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 교육기회, 다양한 예체능활동기회, 교사-학생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는 고등학생들의 거주지역이나 가족배경에 따라서 상이하다. 6개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지역은 서울이며, 가장 부정적인 지역은 기타 지역(충청·호남·강원 등)이다. 또한 가족배경이 상류층에 속하는 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하류층 소속 학생들에 비하여 긍정적이며, 특히 교사-학생의 관계, 진로지도, 고민상담 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하류층 학생들의 평가는 상류층 학생만큼 긍정적이지 않으며, 기초학력 부족학생에 대한 보충교육기회와 다양한 예체능활동기회 등에 대하여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주관적 계층에 따른 학교교육 평가의 차이는 6개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며,²⁾ 상류층 소속 고등학생을 한편으로 중·하류층 학생을 다른 한편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표 1> 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구분	기초학력 부족학생 보충교육 실시	학교 교육 시설이 좋음	다양한 예체능 활동 기회 제공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음	학생 고민 상담 실시	진로 선택에 도움	6개 문항 합계 점수
전체	3.15	3.29	3.19	3.06	3.63	3.61	20.54
성							
- 남성	3.23	3.34	3.18	3.66	3.66	3.61	20.67
- 여성	3.06	3.23	3.21	3.67	3.61	3.62	20.41
지역							
- 서울	3.35	3.57	3.42	3.80	3.67	3.71	21.52
- 인천, 경기	3.14	3.27	3.14	3.64	3.64	3.58	20.59
- 영남권	3.19	3.26	3.22	3.73	3.68	3.63	20.41
- 기타 지역	2.98	3.14	3.08	3.54	3.55	3.58	19.99
주관적 계층							
- 상류층	3.55	3.62	3.43	3.98	3.95	3.95	22.48
- 중간층	3.11	3.28	3.28	3.65	3.66	3.61	20.60
- 하류층	3.06	3.19	3.01	3.57	3.49	3.51	19.85

주) 표의 수치는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않다.....⑤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이다.

2)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를 분석하는 기법으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등이 있다. 이 분석에 의하면, 학교교육과 관련한 6개 문항(<표 1>)의 F값은 4.70, 3.68, 3.86, 4.28, 5.23, 4.44이며, 유의확률은 모두 0.01이하로, 평가점수(5점척도)의 계층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본문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통계값 및 유의확률 등을 각주에서 제시한다.

2) 사교육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의 교육이 주로 대학입시용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들의 교육기회 현실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는 사교육 기회와 경험이다. 더 많은 혹은 질 높은 사교육을 통하여 주요 교과목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심지어 논술이나 자기소개서, 입시정보 등을 파악하는데 사교육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등학생의 63.3%가 현재 학원수강·개인(그룹)과외·인터넷강의 등 각종 사교육을 받을 정도로 사교육은 고등학생의 교육활동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사교육 경험은 성별 차이 없이,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사교육 경험자 혹은 사교육 과목(군) 수에서 성별 차이가 없으며,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남학생 비중이 여학생보다 약간 더 높을 뿐이다.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자녀의 수가 1~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투자가 성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 기회는 학생의 가족배경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표 2>). 사교육은 고등학생의 주관적 계층에 따라서 상이한데,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중은 하류층(58.4%)보다는 상류층(72.4%)에서, 월평균 100만원이상 사교육비 지출 학생의 비중도 하류층(7.3%)보다는 상류층(18.6%)에서 훨씬 더 높다. 사교육과 가족배경의 연관성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의 응답에서도 확인된다. 응답 고등학생 가운데 36.7%는 사교육을 받지 않으며,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의 효과가 없다(14.5%)’가 아니라 ‘가정형편상 사교육비용이 부담이 된다(33.3%)’는 점이다. 특히 하류층 가운데 50.6%, 중간층 가운데 23.1%가 ‘사교육비의 부담’을 이유로 사교육기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학생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사교육기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고등학생의 사교육 현황

구분	사교육 경험자 비중(%)	사교육 과목(군) 수*	월평균 사교육비용 분포(%)				
			40만원 이하	41~60만원	61~80만원	81~100만원	100만원 이상
전 체	63.3	1.31	50.0	19.18	12.26	8.49	10.06
성							
- 남성	64.0	1.31	42.51	20.36	16.77	10.18	10.18
- 여성	62.3	1.31	53.39	18.79	6.71	7.38	8.72
지역							
- 서울	77.9	1.87	43.93	19.69	10.60	12.12	23.63
- 인천, 경기	61.9	1.30	46.31	15.79	15.79	11.57	19.52
- 영남권	68.7	1.30	51.13	26.13	5.68	5.68	11.36
- 기타 지역	50.0	.97	60.0	13.84	16.92	6.15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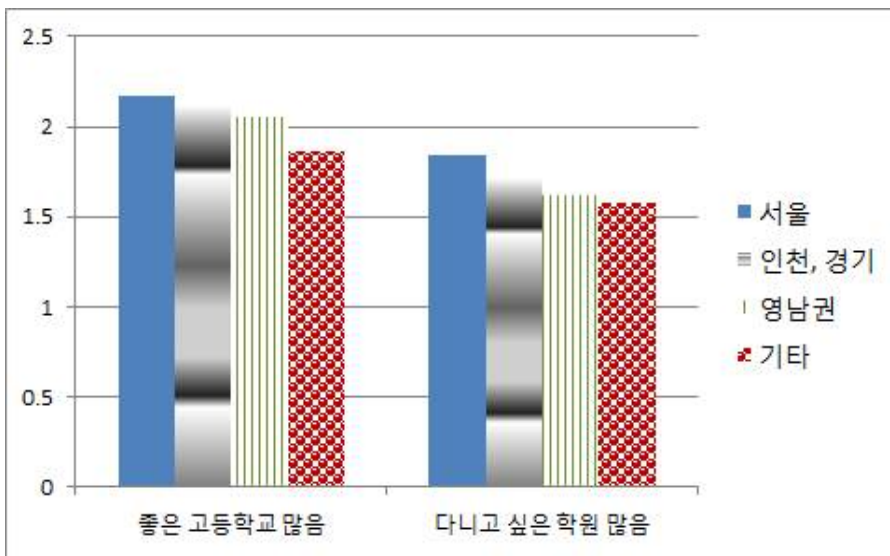
주관적 계층							
- 상류층	72.4	1.53	30.23	11.62	20.93	18.60	18.60
- 중간층	64.7	1.34	48.19	22.89	8.43	10.84	9.64
- 하류층	58.4	1.20	60	16.36	14.54	0.90	7.27

주) '사교육 과목(군) 수'는 국어·영어·논술과목군, 수학과목군, 영어과목군, 사회·과학과목군, 한문·제2외국어과목군, 예체능과목군, 컴퓨터·자격증취득과목군의 수치를 의미하며, 월평균 사교육 비용 분포(%)는 사교육 받은 학생 가운데 비용별 분포를 의미함.

또한 사교육경험은 고등학생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달라진다. 사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의 비중이나 사교육비 지출액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더 높고, 비수도권에서는 영남권에서 더 높다. 호남·강원권 등 기타지역에서 사교육경험 학생의 비중은 50%로 서울의 2/3 수준이며, 이들이 월평균 100만원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3%로 서울보다 훨씬 낮다(<표 2>).

결국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기회도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역별 교육여건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평가도 동일한 순서의 지역격차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설문조사자료에서 '우리지역에는 좋은 고등학교가 많다' 혹은 '다니고 싶은 사교육기관이 많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며, 수도권>영남권>기타지역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1>). 따라서 이러한 교육여건의 차이가 공·사영역 교육기회의 지역격차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지역별 교육여건



주) 표의 수치는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의 평균값.

3) 어린시절 문화체험·교육

청소년의 교육기회는 어린시절의 문화체험·교육 기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교육열이 높은 현재의 부모세대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이전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받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초등학교입학 후에도 자녀의 재능개발을 위하여 예체능 분야의 사교육을 실시한다. 설문조사 응답학생 가운데 97.5%가 어린시절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닌 경험이 있으며, 80%는 8~13세 무렵에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분야의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경험한 예체능분야 사교육기회 조차도 학생의 계층이나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표 3> 참고). 주관적 계층별로는 상류층가정의 학생 가운데 89.8%가 어린시절에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하류층 가운데 이러한 경우는 74.7%에 불과하다. 또한 예체능분야 사교육 경험자 비중은 수도권·영남권에서 모두 80%이상이지만, 기타지역에서는 62.3%에 불과하다.

고등학생들의 과거 문화체험 경험도 지역 및 계층별로 차이를 나타낸다.³⁾ 서울지역 학생은 다른지역 학생보다 오페라·뮤지컬 등 공연 관람, 미술관·박물관 관람의 경험이 더 많으며, 비교적 대중적인 문화활동인 연극·영화 관람 기회도 수도권·영남권과 기타 지역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계층별로도 상류층 학생들은 4개 영역의 문화활동 경험이 하류층 학생에 비하여 더 많았으며,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여행 경험자 비중도 하류층 학생보다 1.8배 정도 높다.

<표 3> 어린시절(8~13세) 문화체험·교육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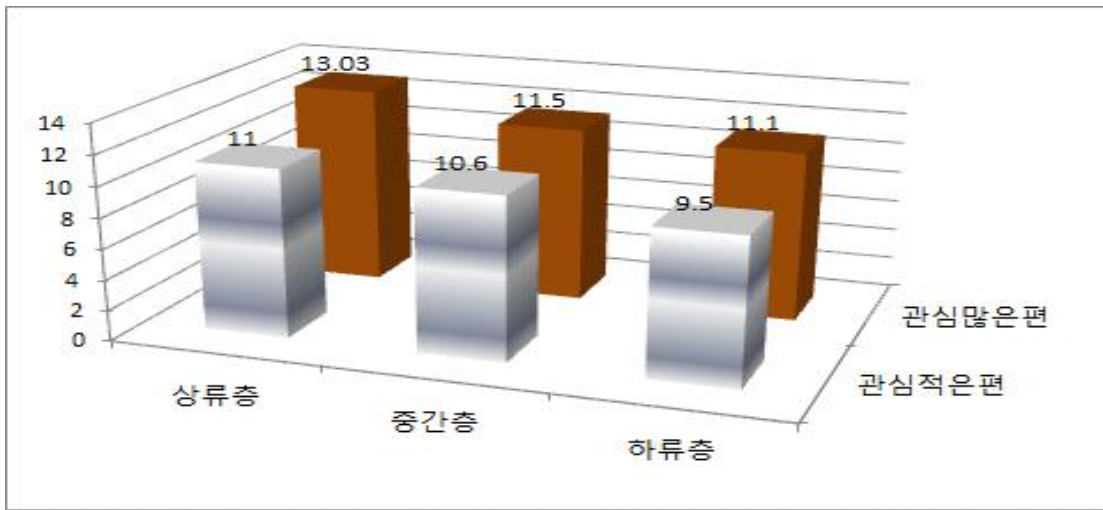
구분	문화체험활동 빈도(점)				문화여가활동 경험자 비중(%)	
	오페라, 뮤지컬 공연관람	미술관, 박물관 관람	연극, 영화 관람	가족 여행	예체능 사교육 경험	해외여행·방문경험
전체	2.02	2.51	3.31	2.84	79.8	39.9
성						
- 남성	1.99	2.42	3.23	2.85	75.9	42.1
- 여성	2.05	2.60	3.39	2.84	83.8	37.5
지역						
- 서울	2.22	2.78	3.43	2.84	80.5	51.7
- 인천, 경기	2.02	2.59	3.34	2.78	88.4	42.6
- 영남권	2.12	2.47	3.41	2.93	86.7	36.7
- 기타 지역	1.79	2.26	3.08	2.80	62.3	32.1

3) 문화체험 및 교육활동의 지역·계층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계층간 평균값을 비교하면, 4개 항목의 F값은 8.25, 110.3, 10.69, 10.37이며, 유의확률은 모두 0.01이하이다.

주관적 계층						
- 상류층	2.46	2.81	3.39	3.20	89.8	61.0
- 중간층	2.04	2.51	3.45	2.93	81.1	39.4
- 하류층	1.86	2.40	3.08	2.59	74.7	33.7

주) 문화체험활동 빈도는 각 영역의 5점척도(①한번도 없음...⑤월 2회이상) 평균값이다.

<그림 2> 부모의 자녀관심도와 주관적 계층에 따른 문화체험활동 빈도



주) 수치는 4개 문화활동빈도의 5점척도합계이며, '관심많은/적은 편'의 구분은 주4) 참고.

원래 아동·청소년기 문화체험활동은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며, 이 조사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교우관계 혹은 교육활동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 예체능분야 사교육 경험 비중이 더 높고, 오페라 등의 문화체험, 국내외 여행 등의 경험이 더 많았다.⁴⁾ 그러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정도가 동일한 집단에서도 4개 항목의 문화체험활동 빈도는 상류층>중간층>하류층의 순서로 나타난다는 점을 볼 때, 어린시절의 문화체험경험은 부모의 관심뿐만 아니라 가정의 계층적 배경과 밀접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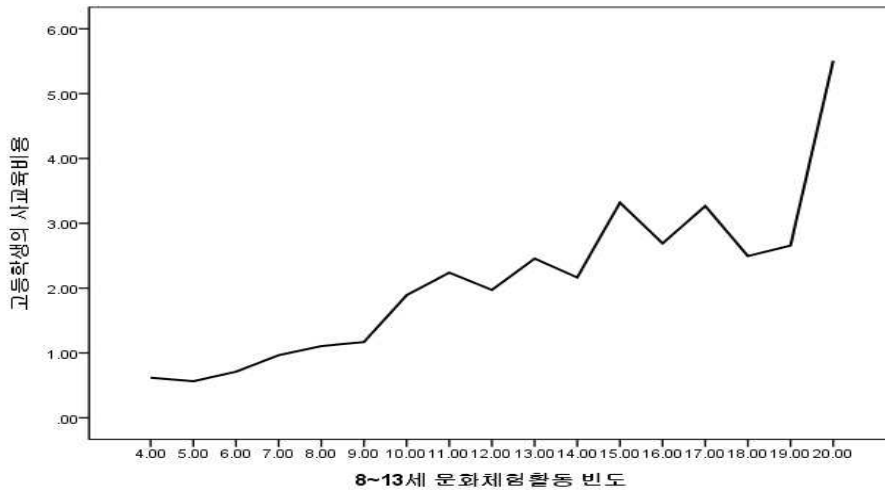
한편 세계화 시대에는 청소년들의 해외방문경험이 과거보다 더 증가하였으며, 응답자 40% 정도는 해외를 방문하거나 여행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도 서울과 비수도권지역, 상류층과 중간·하류층 고등학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표 3>). 또한 해외경험이 없는 경우에 주요 원인이 '가정형평상 여행비용이 부담되는 점'(41.1%)이며, '가정형편상 여행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이 하류층 고등학생에서 가장 많다.

이러한 어린시절 문화체험경험의 차이는 고등학생 시절의 사교육 경험의 차이로 연결된다. 부모의 관심도나 지원정도가 높은 고등학생들은 이미 초등·중학교시절에 많은

4) '관심이 많은 편'과 '관심이 적은 편'은 8~13세 시절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4개 문항("부모님께서 자녀의 학교준비물, 숙제 등을 꼼꼼히 챙겨주셨다," "교과서나 참고서 외에 자녀가 원하는 책을 자주 사주셨다" 등)을 기초로 구분하였다. 예체능 사교육경험자 비중은 '자녀의 교우관계 혹은 교육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 88.6%이지만, '관심이 적은 경우'에는 67.2%에 불과하다.

교육기회를 제공받았으며, 부모의 지원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학생의 고등학교시절 사교육기회도 다른 학생에 비하여 더 많다(<그림 3>). 결국 고등학생들의 교육기회 격차는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교육경험이 누적된 것이며, 이러한 생애과정의 교육격차는 사회적 기회불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 어린시절 문화체험활동과 현재 사교육비의 연관성



2. 사회적 기회불평등 의식

한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은 사회적 성공을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사회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한국 고위층의 성취’이나 ‘본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당사자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표 4>).

<표 4> 한국의 사회적 성공과 기회 공평성에 대한 의식

(단위: 점)

구분	사회적 성공			사회적 기회 불공평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	고위층의 성취는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의 결과이다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내가 노력한 결과이다.	개인이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는데 기회가 공평하다
합계	3.68	3.58	3.22	3.70
성				
- 남성	3.62	3.54	3.15	3.67
- 여성	3.75	3.63	3.30	3.73
지역				
- 서울	3.63	3.61	3.27	3.65
- 인천, 경기	3.71	3.61	3.22	3.64
- 영남권	3.55	3.50	3.09	3.68
- 기타 지역	3.81	3.60	3.32	3.81
주관적 계층				
- 상류층	3.24	3.01	2.70	3.27
- 중간층	3.55	3.54	3.14	3.59
- 하류층	3.99	3.82	3.49	3.98

주) 표의 수치는 각 문항에 대한 5점척도(①매우 긍정....⑤매우 부정)의 평균값이다.

또한 사회적 성공에 대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상류층 소속감을 갖는 고등학생에 비하여 하류층 소속감을 갖는 학생들이 더욱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회는 개인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류층<중산층<하류층의 순서로 나타나며, 세 계층집단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명확하다.⁵⁾ 지역별로 구분해도, 수도권과 영남권보다는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이다.

5) 표의 4가지 항목에 대한 계층간 평균점수의 통계량(F값)은 16.96, 16.21, 16.82, 23.76이며, 모든 항목의 유의확률 <0.01이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위한 기회도 공평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는데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공평하다’는 응답은 고등학생 가운데 6.1%에 불과하며,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은 61.7%에 이른다. 또한 기회공평성에 대한 응답은 지역별 혹은 계층소속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위 문항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적은 집단은 상류층 가정의 고등학생, 가장 많은 집단은 하류층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들의 기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표 5>에서도 확인된다. 기회불평등과 관련한 6개 항목에 대한 7점척도 응답결과(평균점수)를 보면,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회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편이라 생각하며,⁶⁾ 특히 ‘취업을 하거나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평균점수 5.06), ‘사회적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평균점수 4.78)과 ‘교육의 기회 불평등’(평균점수 4.45)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 노동시장과 교육 영역이 학교-노동시장 연계 영역(from school to work)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 인맥도 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회불평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지역과 가족배경 등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충청·강원·호남권 고등학생은 대부분의 기회불평등에 대하여 좀 더 심각하다고 의식하며,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평가한다. 또한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6개 항목 전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계층간 의식격차는 주로 상류·중산층과 하류층 사이에서 명확히 존재한다. 특히 교육, 사회적 관계,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하류층 고등학생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주관적 하류층 고등학생들이 노동시장이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맥형성 기회불평등도 심각하다고 평가한 것은 사회적 관계의 계층별 격차를 반영한다. 혈연이나 학연 등 사회적 연줄망(network)이 개인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의 폭이나 크기도 사회계층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 조사자료의 상류층 고등학생 가운데 10.2%가 ‘가족, 친지, 선후배 등을 통하여’ 아는 고위직 공무원이 있으나, 하류층 학생 가운데 이러한 경우는 1.6%이다. 또한 대기업임원, 법조계, 교수, 의사 등을 아는 경우도 사회계층별로 명확히 차이난다. 이러한 현실이 하류층 소속 고등학생들의 ‘인맥형성 기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6)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6개 기회불평등 영역의 연관성을 분석하면, 문항①의 성분행렬수치는 .77, 문항② .80, 문항③ .74, 문항④ .79, 문항⑤ .74, 문항⑥ .79로서 고등학생들의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일관됨을 알 수 있다.

<표 5> 기회불평등 심각성 정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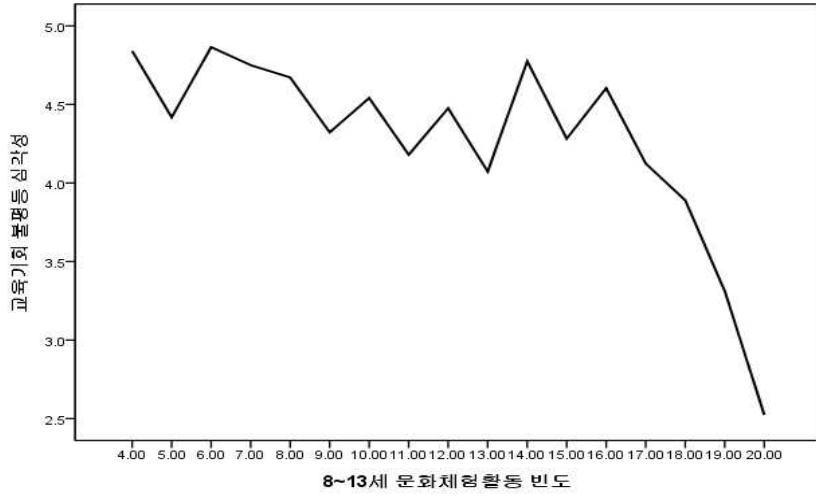
구분	1)교육 기회 불평등	2)사 회 인맥 형 성 기회 불평등	3)취업· 승진 기 회 불평 등	4)문화활 동 기회 불평등	5)건강관 리 기회 불평등	6)정보획 득 기회 불평등	◎ 6개 항목 합 계
전체	4.45	4.78	5.06	4.30	4.00	4.25	26.83
성							
- 남성	4.35	4.68	4.97	4.24	4.00	4.22	26.46
- 여성	4.55	4.89	5.15	4.36	4.00	4.27	27.23
지역							
- 서울	4.32	4.75	5.01	4.21	3.93	4.35	26.57
- 인천, 경기	4.40	4.68	5.10	4.32	3.98	4.08	26.61
- 영남권	4.45	4.75	5.01	4.25	3.96	4.29	26.67
- 기타 지역	4.58	4.95	5.08	4.36	4.11	4.33	27.41
주관적 계층							
- 상류층	4.15	4.40	4.64	4.09	3.88	4.0	25.16
- 중간층	4.34	4.63	4.90	4.19	3.92	4.16	26.15
- 하류층	4.69	5.11	5.40	4.50	4.15	4.44	28.29

주) 표의 수치는 각 문항의 7점척도(①전혀 심각하지않다....⑦매우 심각하다) 평균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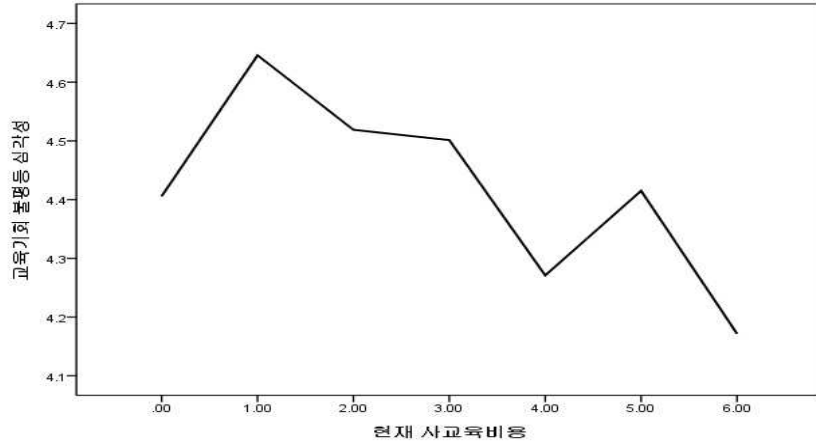
고등학생들의 교육기회불평등에 대한 의식도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교육경험과 밀접히 관련된다. 8~13세 시절에 음악·미술·여행 등 문화체험활동이 적었던 고등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이 많았던 학생들에 비하여, 현재 사교육비를 적게 사용하는 고등학생들은 많이 사용하는 학생에 비하여 교육기회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그림 4>, <그림 5>). 반면 어린시절 문화체험활동이 상당히 빈번했던 학생들 혹은 현재 사교육비를 월평균 100만원이상 사용하는 학생들은 교육기회불평등에 대하여 덜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 평가도 전반적인 기회불평등 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상담 혹은 진로지도 등 많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충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할수록 학생들의 사회적 기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줄어든다(<그림 6>).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경험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으로서, 학교에서의 교육경험이 교육기회 등을 포함한 사회적 기회불평등 의식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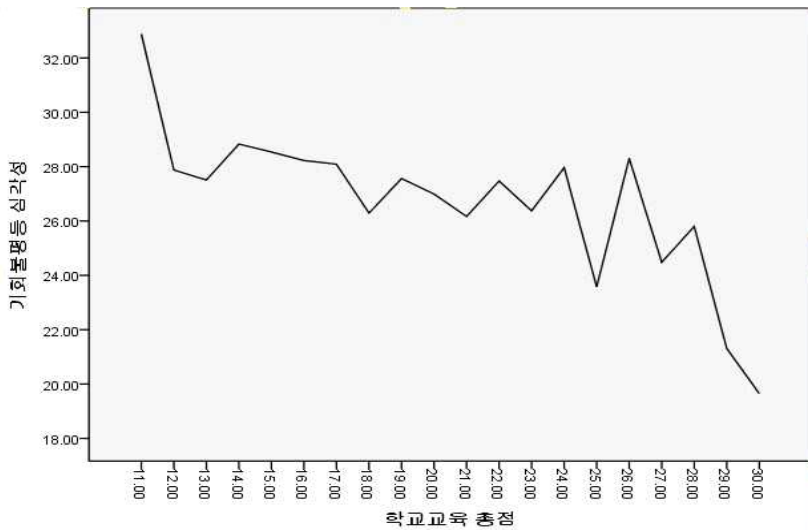
<그림 4> 어린시절 문화체험·교육경험과 교육기회불평등 의식



<그림 5> 현재 사교육비용과 교육기회불평등 의식



<그림 6> 현재 학교교육 경험과 사회적 기회불평등 의식



3. 기회불평등과 계층이동 의식

사회적 기회불평등 의식이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반영한다면, 계층이동 의식은 현재부터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동에 관한 기대감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기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세대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할 경우, 응답자가 생각하는 15세 무렵(중학교 3학년 시절) 계층지위 점수는 4.95이며, 이들의 미래세대(자신의 자녀가 응답자의 연령이 될 경우)는 5.87의 계층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주관적 하류층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이 기대하는 계층상승이동 폭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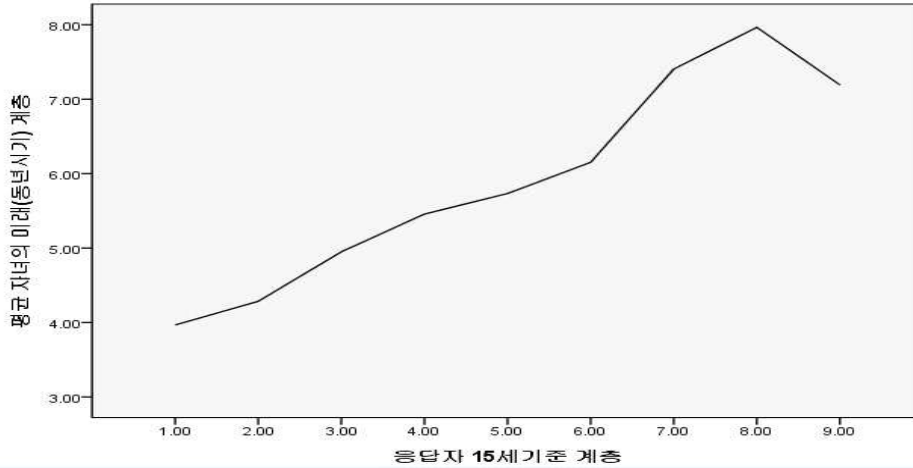
<표 6> 계층이동 가능성: 주관적 계층지위를 기준으로

(단위 : 점)

구분	A. 응답자의 15세 기준 계층지위	B. 자녀의 미래(응답자와 동일연령) 계층지위	C. 계층상승이동 기대 정도 (B-A)
전체	4.95	5.87	0.92
성			
- 남성	5.04	5.83	0.79
- 여성	4.86	5.92	1.06
지역			
- 서울	5.35	6.04	0.69
- 인천, 경기	5.02	6.06	1.04
- 영남권	4.85	5.83	0.98
- 기타 지역	4.71	5.59	0.88
현재 계층			
- 상류층	6.90	8.09	1.19
- 중간층	5.36	6.01	0.65
- 하류층	3.78	4.99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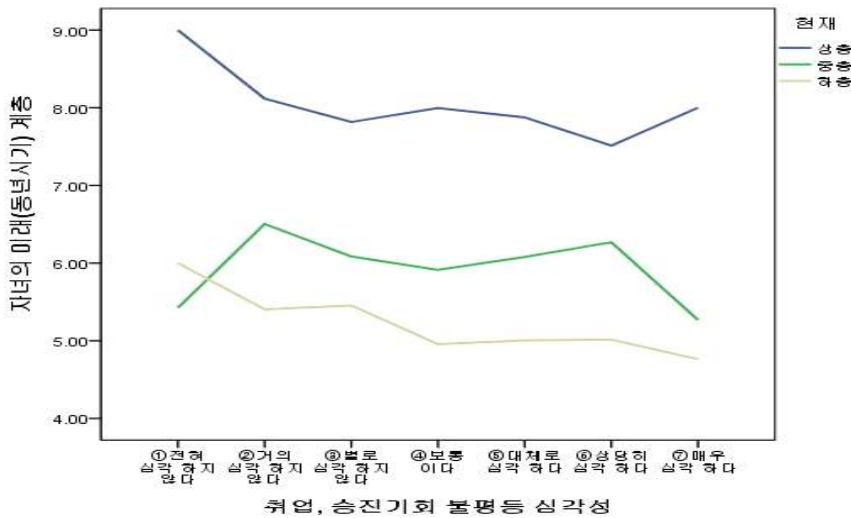
그러나 고등학생들이 현재의 계층장벽을 뛰어넘는 상승이동을 기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하류층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고등학생들은 미래의 자녀세대들도 여전히 낮은 계층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며, 상류층 고등학생들은 자녀도 중산층 혹은 하류층 출신 자녀보다 더 높은 계층에 소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그림 7> 참고). 일례로 현재 상류층 소속 고등학생이 기대하는 자녀의 미래 계층지위는 평균 7점이상의 범위에 있으나, 하류층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점이하의 범위에 있다. 또한 가구소득 200만원이하의 고등학생 응답자는 자녀들의 미래 계층지위가 평균 5.63점수준일 것으로, 가구소득 600만원이상의 고등학생은 자녀들이 미래에 6.24점의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기대하는 세대간 이동은 계층의 장벽을 넘는 상승이동 보다는 소득·직업을 기초로 한 계층적 재생산의 성격이 강하다.

<그림 7> 세대간 계층이동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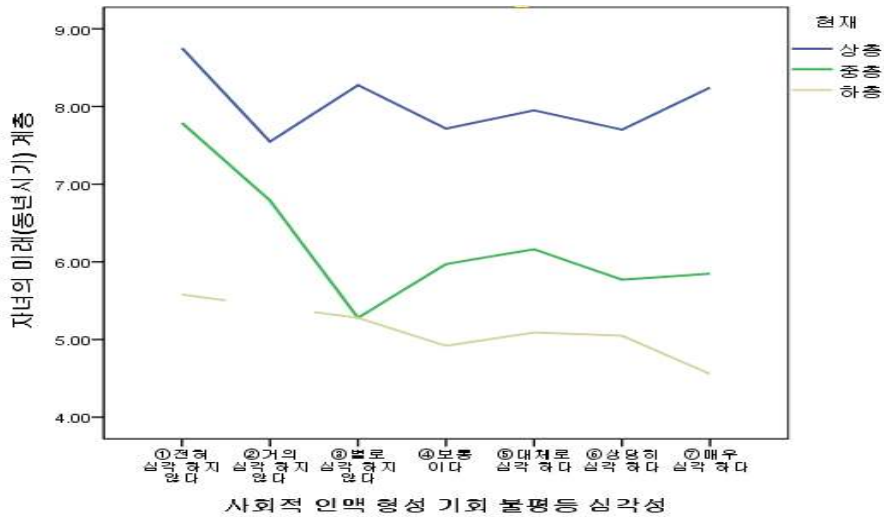


이러한 계층이동에 대한 평가는 기회불평등 의식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승진관련 기회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고등학생이 기대하는 자녀세대 계층지위는 ‘심각하지 않다’는 고등학생의 경우에 비하여 더 낮으며, 이들이 인맥형성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미래세대의 계층지위도 더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그림 8>, <그림 9> 참고). 또한 이러한 경향이 상·중간층 보다는 하류층에 소속된 고등학생에서 좀 더 명확히 나타난다는 점을 볼 때, 계층적 지위의식이 낮은 고등학생들은 사회적 기회불평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미래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욱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 취업·승진기회 불평등의식과 자녀의 계층 기대감



<그림 9> 인맥형성기회 불평등의식과 자녀의 계층 기대감



V. 결론

한국사회에서 고등학생들의 교육경험과 기회는 사회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계층·지역별로 상이하다. 학교교육이나 사교육 기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지역과 기타지역(강원·호남 등), 상류층 가족배경과 하류층 배경의 학생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어린시절의 문화체험활동, 예체능분야 사교육, 국내외 여행경험도 계층·지역간에 많은 격차를 나타낸다. 한국사회에서 교육받을 ‘기회’는 형식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의 교육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교육경험의 차이는 교육기회불평등, 더 나아가 전반적인 기회불평등에 대한 의식이나 계층이동 기대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성공이 노력만으로 된다’ 혹은 ‘성공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등학생이 많으며, 취업·승진, 교육, 인맥형성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영역의 기회 공평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의식은 주관적 하류층 혹은 기타지역(강원, 호남 등) 고등학생일수록, 그리고 어린시절부터 공·사영역의 교육경험이 적은 학생일수록 더욱 부정적이다. 또한 기회불평등 의식은 사회적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한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자녀세대가 자신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계층이동은 현재의 계층적 지위를 뛰어넘는 상승이동 보다는 ‘현재의 사회적 조건이나 기회불평등을 반영하는 계층 재생산’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의 교육기회 불평등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와 같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교육기회가 불평등

하게 제공된다면, 교육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미래의 꿈을 위하여 노력하는 청소년이 줄어들고, 청년세대의 사회적 좌절과 저항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정책들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학교교육’으로 표현되는 공교육의 강화와 균형발전이다. 학생들이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활동은 기본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기회도 가능한 학교별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야 하며, 교육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낙후된 지역에 있는 학교,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특별 예산과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교육·복지정책도 공교육 강화와 교육기회 평등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은 사교육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적 관심을 공교육으로 되돌리고, ‘학교가 배움과 교육의 핵심적인 장(場)’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공교육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중요한 정책은 대학입시제도이다. 대학입시가 초·중등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한국적 상황에서, 입시제도 자체가 특정한 사교육활동 경험자와 가정배경 출신자, 그리고 특정유형의 학교졸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많은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학교에서 배우고 노력한 결과를 기초로 공평하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며, 가정배경이나 사교육경험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도록 입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회불균형 현실을 고려하여, 낙후지역 및 저소득가정 학생 가운데 잠재적으로 능력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유지·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은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고등학교의 입시제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기회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교육분야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2000년대 들어서 더욱 커지는 것은 학력·직종·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등 사회불평등 확대와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은 성인세대들의 빈곤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며, 이들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혜·김양분·류한구·김재철·강태중, 2004.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영화. 2015. “한국의 교육과 경제성장.” 오성철 외 저. 『대한민국교육 70년』 209-286.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박환보. 2015. “해방이후 학교교육 팽창의 규모와 특징.” 오성철 외 저. 『대한민국교육 70년』 145-208.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방하남·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7-26.
- 변수용·김경근. 2008. “한국 고등학생의 교육결과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8(2): 53-82.
- 신중호·황혜영·서은진. 2010. “부모의 학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에 따라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1(4): 249-264.
- 안병영·임혁백, 1999.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나남.
- 이성균·신광영·조돈문. 2007.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한국, 미국, 브라질의 사례연구』. 서울: 집문당.
- 장미혜, 201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223-251.
- 장상수, 2015,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 오성철 (외) 저. 『대한민국교육 70년』 287-347.
- 장상수. 2000. “교육기회의 불평등: 가족배경이 학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3): 671-708.
- 통계청. 2015. “2015 한국의 사회지표.” 2016년 3월 23일자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2018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주요사항.”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년 4월 28일 보도자료
- 홍봉선. 2014. “청소년문제와 사회복지.” 최선화 외 (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양서원.
- Bourdieu, Pierre.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 Byun, Sooyong and Kyungkeun Kim. 2010. "Educational Inequality in South

- Korea: The Widening Socioeconomic Gap in Student Achievement." *Review in Sociology of Education* 85(3): 219-239.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_____. E. Q. Campbell, C. J. Hobson, J. McPartland, A. Mood, F. D. Weinfeld, and R. L. York. 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Giddens, Anthony. 2009. *Sociology* (6th edition). Polity Press.
- OECD. 2013. *PISA 2012 Results: Excellence through Equality: Giving Every Student the Chance to Succes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Park, Hyunjoon, 2013, *Re-evaluating Education in Japan and Korea: Demystifying Stereotypes*. Oxford: Routledge.
- Sorensen, Aage B. and Stephen L. Morgan. 2000. "School Effect: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M. T. Hallian (eds.) *Handbook of Sociology of Education*, 137-160. New York: Kluwer Academic.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리포트를 무단전재 및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